

목 차

■ HRI 한반도평화지수

I. HRI 한반도평화지수의 조사 결과	1
II. 천안함 관련 현안 설문 조사 결과	9
< 부록 1 > HRI 한반도 평화지수 개요	12
< 부록 2 > 동향데이터 핵심 변수	13
< 부록 3 > 남북 관계 전문가 설문 조사	14

Executive Summary

□ HRI 한반도 평화지수 - 남북 관계 긴장 지속

HRI 한반도 평화지수란 남북 관계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전체적인 평화의 정도를 계량화된 수치로써 나타낸 지수로서, 객관적 통계 자료를 통해 조사된 '정량분석지수'와 전문가들의 주관적 분석에 기초한 '전문가평가지수'로 구성된다.

< 2009~2010 HRI 한반도 평화지수 조사 결과 >

구분	HRI 한반도 평화지수					기대지수	
	정량분석지수	전문가평가지수		기대지수	기대지수		
		이벤트지수	교류지수			전문가평가지수	기대지수
'10-2분기	22.6	34.4	33.3	35.4	10.9		26.6
'10-1분기	29.9	43.3	42.8	43.8	16.5 (3월)	7.2 (4월)	30.4 (3월) 18.1 (4월)
'09-4분기	41.0	48.5	49.3	47.7	33.5		50.8
'09-3분기	40.2	39.8	48.1	31.5	40.5		53.8

(종합 평가) HRI 한반도 평화지수는 천안함 사건의 여파로 지난 분기 29.9에서 이번 분기 22.6으로 하락하였다. 이는 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공격으로 결론지은 후, 5.24 대북 조치와 이에 따른 남북 간 강경한 대립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다음 분기의 기대지수도 26.6을 나타내며 남북 간의 긴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천안함 사건의 유엔 안보리의 대북 성명 발표에 이어서 기존의 대북 제재 조치가 유지 또는 강화되면서 남북 관계가 쉽게 개선되기 힘들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항목별 평가) 1분기와 같이 전문가평가지수가 전체적인 지수의 하락을 주도하였다. 전문가평가지수는 10.9를 기록하며 전기대비 5.6p의 하락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지난 4월말에 조사했던 7.2p보다는 3.7p 상승함으로써 남북 관계가 일단 최저점을 지났다는 전문가들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정부의 5.24대북조치 발표 이후, 대북심리전을 유보하는 등 지나친 대결로 가는 것을 자제하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량분석지수도 교류지수와 이벤트지수의 동반 하락으로 30포인트대로 하락하였다. 2분기 초반 각국의 6자회담 재개 노력과 김 위원장의 방중이라는 호재가 있었으나, 천안함 사건으로 한반도의 정치 군사적인 위기감이 증폭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북한의 금강산 부동산 동결조치와 남북 경협 위축으로 인해 교류지수도 크게 하락하였다.

(대북 현안 설문조사) 남북 관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유엔의 결정을 수용하고 천안함 사건을 마무리 지은 뒤, 새로운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았다. 대북정책의 바람직한 출구전략으로 전문가들은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물밑접촉을 가장 많이 주문하였고, 6자회담 재개로의 정책 선회, 인도적 지원의 확대, 남북 경협 확대 등을 바람직한 출구전략으로 주문하였다. 또한 다수의 전문가들은 정부가 6자회담의 재개와 천안함 사건 해결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설문에 참여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향후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천안함을 둘러싼 외교전이 장기화되면서 현재의 긴장 상태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1. HRI 한반도 평화지수 조사 결과

○ (종합 평가) 2010년 1분기 HRI 한반도 평화지수는 지난 분기에 비해 크게 하락하면서 남북 관계는 긴장 단계에 돌입

- 남북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번 분기 HRI 한반도 평화지수와 기대지수는 모두 하락세로 돌아섬

· 2009년 3분기와 4분기 각각 40.2, 41.0를 보이던 평화지수는 이번 분기 29.9를 기록함으로써 전기대비 11.1p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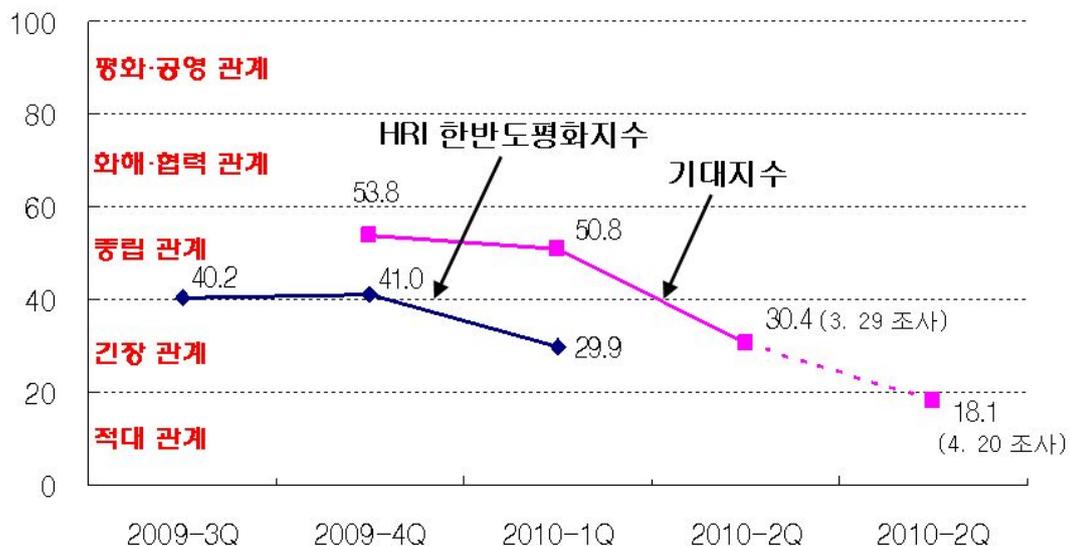
· 이는 남북 관계가 지난 분기에 대화와 갈등이 교차되는 중립 관계에서 이번 분기에는 긴장과 위협이 고조된 긴장 관계로 악화되었음을 의미

· 다음 분기에 대한 기대지수도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며 전기 대비 20.4p 하락한 30.4를 기록

- 특히, 천안함 사건 1개월 후(4. 20~23)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기대지수는 12.3p 추가 하락하여 18.1을 기록

· 이는 천안함 사건의 북한 개입 의혹이 증폭되면서 전문가들은 남북 관계에 대한 전망이 이전보다 악화되었음을 의미

< 2009~2010 HRI 한반도 평화지수의 추이 >



- **요인 분석** : 6자회담 재개 협상의 지연과 갈수록 높아지는 남북 당국 간 갈등이 지수의 주된 하락 요인으로 분석됨
 - 연초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관련국들의 노력이 활발히 전개되었으나, 재개 조건을 둘러싸고 북미 간 팽팽한 신경전이 지속됨
 - 신종플루 의약품 지원 등 정부의 대북 지원이 재개되었으나, 서해상에서의 군사적 위협이 증대되고, 남북 실무급 회담의 잇따른 결렬 사태 발생
 - 금강산 관광 재개를 둘러싼 당국 간 갈등이 높아지는 가운데, 천안함 침몰 사건 발생 및 북한 개입 의혹설이 대두됨으로써 남북 관계의 긴장 고조
 - 기대를 모았던 김 위원장의 방중 이벤트가 무산되고, 천안함 사건의 여파로 인해 6자회담 재개 전망이 불투명해짐

- **차기 전망** : 천안함 사건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로 당국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남북 관계는 현재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
 - 천안함 침몰 사건의 2차 조사 결과, 수중 비접촉 타격설이 유력시 되면서 북한의 개입 의혹이 더욱 증폭
 - 침몰 원인 조사 결과, 북한의 공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남북 관계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
 - 또한 북한의 민간부동산 동결조치 선언에 따른 정부의 단호한 대응이 예상되고 있어 2분기 남북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

< 2009~2010 HRI 한반도 평화지수 조사 결과 >

구분	HRI 한반도 평화지수					기대지수
		정량분석지수			전문가평가지수	
		이벤트지수	교류지수			
'10-1분기 (3.29~)	29.9 (▽11.1)	43.3 (▽5.2)	42.8 (▽6.5)	43.8 (▽3.9)	16.5 (▽17.0)	30.4 (▽20.4)
'09-4분기	41.0 (▲0.8)	48.5 (▲8.7)	49.3 (▲1.2)	47.7 (▲16.2)	33.5 (▽7.0)	50.8 (▽3.0)
'09-3분기	40.2	39.8	48.1	31.5	40.5	5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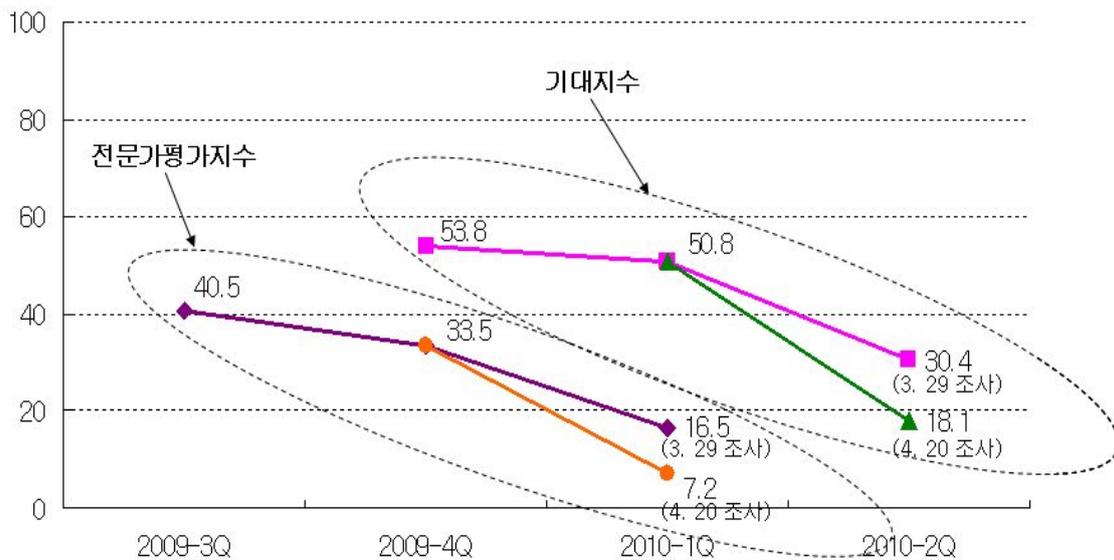
○ (항목별 세부 평가) 2010년 1분기 남북 관계에 대한 전문가 평가지수와 실적을 기초로 한 정량분석지수 모두 하락세를 기록

① 전문가평가지수 (2009년 4분기 : 33.5 → 2010년 1분기 : 16.5)

- 총 91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들의 남북 관계에 대한 평가는 지난 분기에 비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평가지수는 지난 분기의 33.5에 비해 무려 17.0p 하락한 16.5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문가들의 남북 관계의 개선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특히, 신년공동사설과 잇따른 외자유치정책과 함께 북한의 태도 변화와 6자 회담의 재개가 기대되었으나, 북미 간 현저한 입장 차이로 회담 재개가 지연되면서 이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됨
- 남북 간에도 지난해부터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기대가 높았지만, 오히려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등을 둘러싸고 남북 당국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금강산 관광이 존폐의 위기에 처한 상황이 반영됨
- 전문가평가지수의 추이를 살펴볼 때, 2009년 3분기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전문가들은 남북 관계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전문가평가지수는 2009년 3분기부터 40.5 → 33.5 → 16.5로 3분기 연속 감소 추세를 나타냄
- 다음 분기 전망치인 기대지수도 전문가들은 평균 15.0p 상향된 기대치를 제시하면서도 53.8 → 50.8 → 30.4로 연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냄
- 이는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볼 때 남북 관계의 부정적인 추세와 남북 관계 회복이 절실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됨
- 기대지수가 3분기 만에 처음으로 50선 아래로 하락하고, 30.4를 기록함으로써 이전에 비해 남북 관계 전망이 어둡다는 것을 보여줌
- 천안함 사건 발생 약 1개월 후(4. 20 ~4. 23) 이뤄진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평가지수는 16.5에서 7.2로, 기대지수는 30.4에서 18.1로 하락

- 천안함의 함미 인양후, 외부폭발설이 유력해진 가운데, 북한의 개입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문가평가지수는 한자리 수를 기록하면서 급격히 하락
-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개입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기 전까지 남북 관계 뿐만 아니라 6자회담 재개 노력까지 동시에 경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인식이 반영됨
- 북한의 정부 소유 부동산에 이어 민간 부동산까지 동결조치를 선언한 가운데 정부는 단호한 대처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져 남북 당국 간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임

< 2009~2010 전문가평가지수와 기대지수의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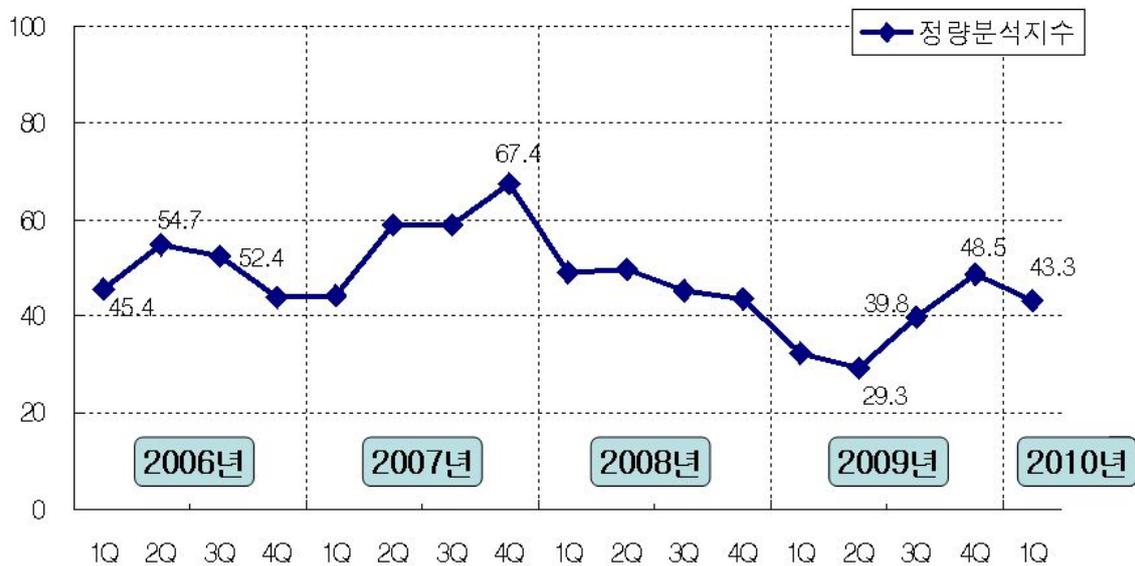


② 정량분석지수 (2009년 4분기 : 48.5 → 2010년 1분기 : 43.3)

- 1분기 정량분석지수는 지난 분기의 48.5보다 5.2p 하락한 43.3을 기록함으로써, 남북 관계의 실적도 이전에 비해 악화된 것으로 평가
-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정량분석지수는 최저점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하여 2009년 4분기에 48.5까지 급상승하면서 남북 관계의 회복세를 나타냄
- 1분기 2008년~2010년 평균인 42.3을 조금 상회하는 수치를 기록했으나, 결국 50선을 넘지 못하고 하락세로 돌아섬

- 정량분석지수가 40선을 유지한 것은, 갈등 상황 속에서도 1분기에는 남북 관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어느 정도 이뤄졌음을 의미
 - 특히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관련국 대표들의 상호교차 방문이 활발하게 이뤄졌으며, 북중 간에도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는 등 회담 재개 분위기가 조성
 - 남북 간 각종 실무급 회담이 개최와 신종 플루 관련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의 재개가 이뤄졌으며, 경제협력사업 승인도 소폭 증가했음

< 2006~2010 정량분석지수의 시계열 추이 >



주 : 정량분석지수는 정치·군사 분야의 '이벤트지수'와 경제·사회·인도 분야의 '교류지수'의 평균값을 의미함

③ 이벤트지수 (2009년 4분기 : 49.3 → 2010년 1분기 : 42.8)

- 지난 분기 49.3p와 비교할 때 약 6.5p 가량 하락한 42.8p를 기록함으로써 남북 간 정치 군사적 관계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각국 대표들의 연쇄회동이 진행되었지만 재개 조건에 대한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회담 재개가 지연된데서 비롯
 - 다양한 실무급 회담이 개최되고 해외공단의 공동시찰이 이뤄지기도 했으나 남북 간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임
 - 남북 관계에 대한 불만으로 북한이 NLL지역에 반복적으로 해안포를 사격하

고, 키리졸브 훈련 실시 등으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된 것도 원인

- 지난 분기와 달리 이벤트지수가 교류지수보다 낮아짐으로써 남북 간 정치·군사적 영역의 관계가 경제·사회·인도적 관계보다 다소 악화
 - 이번 분기 이벤트지수는 핵실험이 있었던 2009년도 이벤트지수의 평균 43.2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치·군사적 관계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
 - 이는 남북 간 정치적 현안들이 북핵 문제와 연계되어 교착상태에 빠지거나 남북 간 갈등을 지속적으로 유발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 특히, 천안함 사건이 핵심적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북한 개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남북 관계는 악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

④ 교류지수 (2009년 4분기 : 47.7 → 2010년 1분기 : 43.8)

- 지난 분기의 교류지수 47.7과 비교할 때 이번 분기에는 3.9p 하락한 43.8을 기록함
 - 남북 교역은 지난 분기의 약 2억 달러에서 약 1억 6천만 달러로 감소되었으며, 경제협력사업 지원액도 소폭 감소
 - 이산가족 상봉 실적 및 이에 대한 지원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사회·문화적 분야의 협력사업은 1건도 승인되지 못함
 - 반면, 신종플루 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지원이 이뤄졌으며, 경제분야 협력사업은 10여건 정도 승인이 이뤄짐
- 교류지수는 2009년 핵실험을 전후로 최저점을 지난 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50선을 넘지 못하고 하락세를 나타냄
 - 교류지수의 2009년 전체 평균 31.7과 비교할 때 호전된 것으로 보이나, 지수가 50선 아래 계속 머물고 있어 여전히 관계 회복이 필요한 상황
 - 그러나 천안함 사건의 여파로 금강산 관광 논의가 불가능한 시점에서 북한의 계약 파기 위협이 증대되고 있어 상황 반전이 쉽지 않을 전망
 - 정부는 금강산 부동산 동결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남북 교역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다음 분기 교류지수의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

< 2006~2010 이벤트지수와 교류지수의 시계열 추이 >



○ (성향별 분석) 남북 관계에 대한 전문가 평가와 다음 분기의 전망은 성향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한반도 및 남북 관계 전문가 91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설문 분석 결과, 현재 전문가평가지수는 16.5, 기대지수는 30.4를 기록
 - 보수, 중도, 진보 성향의 전문가평가지수는 각각 19.0, 15.0, 15.8로, 각각의 지수가 약 4p 내외의 근소한 차이를 나타냈음
 - 이는 보수와 진보를 통틀어 1분기 남북 관계가 지난 분기에 비해 크게 악화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
- 지난 분기와 비교할 때 보수 성향의 전문가 평가가 20p이상 하락하였고, 진보 성향은 13.9p의 가장 낮은 하락세를 나타냄
 - 이는 최근 천안함 침몰 사건 등이 보수적 성향의 전문가들의 안보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을 크게 자극한 것으로 판단됨
 - 반면 진보적 성향의 전문가들은 금강산 관광과 남북 경협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커지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실질적 변화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작았던 것으로 분석됨

- 다음 분기에 대한 기대지수도 보수, 중도, 진보 각각 31.3, 30.6, 28.8로 이념적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음
 - 다만, 진보적 성향의 전문가들의 기대지수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것은 정부의 대북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지난해 3분기의 성향별 전문가평가지수의 표준편차는 7.1로 나타났으나, 4분기에 5.6, 올해1분기에는 각각 2.1, 추가설문조사에서는 1.7로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냄
 - 이러한 변화는 남북 관계의 악화에 대한 공통된 평가와 함께 남북 관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위기 인식을 시사

- 천안함 사건 발생 1개월 후 추가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평가지수는 보수, 중도, 진보가 각각 9.3, 6.0, 7.1로 나타나 이전보다 평균 9.0p이상 하락함
 - 이는 천안함 사건이 보수, 중도, 진보를 막론하고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인식을 보여줌
 - 특히 보수 성향의 전문가들이 기대지수가 13.5p의 가장 큰 하락세를 나타내 이들은 천안함 사건을 안보적 위기 상황으로 다른 성향의 전문가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 성향별 전문가평가지수 >

구 분	보수 성향		중도 성향		진보 성향		전문가 평가지수	기대지수	HRI 평가지수
	현재	예상	현재	예상	현재	예상			
'10. 추가설문	9.3 (▽9.7)	17.8 (▽13.5)	6.0 (▽9.0)	18.3 (▽12.3)	7.1 (▽8.7)	17.8 (▽11.0)	7.2 (▽9.3)	18.1 (▽12.3)	-
'10. 1분기	19.0 (▽20.7)	31.3 (▽20.1)	15.0 (▽15.5)	30.6 (▽24.0)	15.8 (▽13.9)	28.8 (▽20.0)	16.5 (▽17.0)	30.4 (▽20.4)	29.9 (▽11.1)
'09. 4분기	39.7 (▽10.5)	51.4 (▽6.2)	30.5 (▽7.6)	54.6 (▲0.2)	29.7 (▽8.1)	46.8 (▽4.9)	33.5 (▽7.0)	50.8 (▽3.0)	41.0 (▲0.8)
'09. 3분기	50.2	57.6	38.1	54.4	37.8	51.7	40.5	53.8	40.2

주 : 1) 2010년 추가 설문은 2010년 4월 20일부터 4월 23일까지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함
 2) 2010년 1분기 전문가평가지수는 2010년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함
 3) 2009년 4분기 전문가평가지수는 2009년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함
 4) 2009년 3분기 전문가평가지수는 2009년 9월 22일부터 28일까지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함

2. 천안함 관련 현안 설문조사

○ (북한개입설) 천안함 침몰 사건에 북한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 다수의 전문가들의 북한의 개입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음

- 전체 80명의 전문가 중 48.1%가 천안함 침몰에 북한의 개입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었으며, 32.9%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
- 반면, 19.0%의 전문가들만이 북한 개입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여,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북한 개입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정부 대응) 북한 개입설이 사실일 경우, 정부의 가장 바람직한 대응방향은 유엔 안보리 제소와 대북 제재로 나타남

- 전체 57.9%의 전문가들이 유엔 안보리 제소와 대북 제재안을 택했으며, 남북간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19.7%로 두 번째를 차지
- 반면 군사적 대응 조치(9.2%), 남북 교류 전면 중단(6.6%)과 같은 강경한 대응은 현실적으로나 효과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북한 개입시 바람직한 정부 대응 방향 >

정부 대응 방향	비중
유엔 안보리 제소와 대북 제재	57.9%
남북간 대화로 해결	19.7%
보복 타격 등을 통한 군사적 대응	9.2%
남북교류 전면 중단	6.6%
중국의 대북 압박 촉구하는 외교적 노력	6.6%

○ (남북 관계 전망) 대부분의 전문가들이(88.8%) 남북 간 긴장 국면이 지속되거나 남북 경협이 중단될 것으로 전망

- 전체 54.4%의 전문가들은 당분간 남북 관계의 긴장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았으며,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평가
- 남북 교역 중단과 개성공단 폐쇄 등의 조치에 대한 전망이 전체 전문가 응

- 답의 34.2%로 나타나 남북 경협 전면적인 중단 사태도 예상됨
- 한편, 2.5%의 전문가들만이 갈등 고조로 인한 군사적 대결을 예상하고 있어 남북간 군사적인 충돌은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

< 천안함 이후 남북 관계 전망 >

남북 관계 전망	비중
긴장 국면 지속이 지속	54.4%
남북 교역 중단 및 개성공단 폐쇄 등 남북 경협 중단 사태	34.2%
시간이 흐르면서 대북여론 호전으로 천안함 사건이전 상태 회복	7.6%
남북간 긴장 고조로 군사적인 대결 초래	2.5%
잘 모르겠다	1.3%

○ (경제·사회 영향)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 관계가 경색국면에 돌입할 경우,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전체 50.6%의 전문가들이 천안함 사건이 한국의 경제·사회에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고, 32.5%의 전문가들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
- 반면, 16.9%의 전문가들만이 영향이 없을 것으로 평가하여, 천안함 사건이 향후 한국의 경제·사회에 크게 혹은 작게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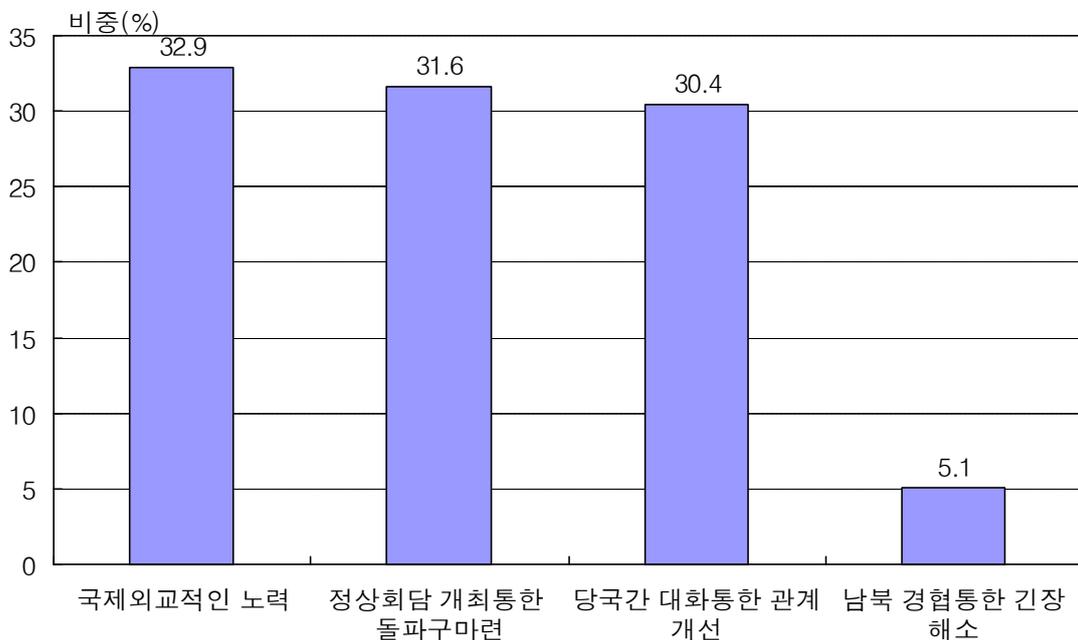
< 천안함 사건이 경제·사회 미치는 영향 평가 >

한국 경제·사회에 대한 영향	비중
단기적으로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	50.6%
영향이 클 것	32.5%
영향이 없을 것	16.9%

○ (정부 정책 과제) 향후 한반도 긴장 해소를 위해서 외교적 노력과 더불어 정상회담과 남북 간 대화를 통한 관계 개선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나타남

- 전체 32.9%의 전문가들이 6자회담 등 국제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평가함으로써 가장 다수를 차지
- 또한 31.6%의 전문가들은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돌파구 마련, 30.4%는 당국간 대화를 통한 관계 개선을 바람직한 정책 과제로 선택
- 민간의 남북 경협을 통한 긴장 해소는 5.1%로 나타나, 현재와 같은 국면에서 남북 경협을 통한 레버리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
- 따라서 전문가들은 정부의 국제 외교적인 노력과 더불어 정상회담추진과 같은 남북 당국 간의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의 고조된 긴장을 완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음

< 한반도 긴장 해소를 위한 정책 과제 >



최성근 선임연구원(2072-6223, csk01@hri.co.kr)

< 부록 1 > HRI 한반도 평화지수(HRI Peace Index)의 개요

○ 한반도 평화지수란 남북 관계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전체적인 평화의 정도를 계량화된 수치로써 나타낸 지수임

- HRI 한반도 평화지수는 주관적 분석 방법론과 객관적 분석 방법론을 종합하여 분석한 통합지수이며, '전문가평가지수'와 '정량분석지수'로 구성
 - 전문가평가지수는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분기별 설문 조사를 통해 산출되며, 다음 분기에 대한 전망치를 바탕으로 '기대지수'도 측정
 - 정량분석지수는 정치·군사 영역의 '이벤트 지수' 사회·문화·인도적 영역의 '교류지수'로 구성됨
- 지수의 범위를 0에서 100으로 설계하였으며 50을 기준으로 0은 가장 위기적인 상태, 100을 가장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함¹⁾

< HRI 한반도 평화지수와 관계 범주 >

관계 범주	내 용	지수 범위
평화·공영 관계	남북 간 신뢰가 구축되고 평화 공존 및 남북 평화체제가 서서히 수립되는 상태	80이상
화해·협력 관계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태	60~80미만
중립 관계	남북 간의 대화와 갈등이 교차되는 상태	40~60미만
긴장 관계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어 상대방에 대한 실제적인 위협 혹은 갈등이 발생하는 상태	20~40미만
적대 관계	핵위기가 고조되거나 군사적 충돌이 심화되어 전면전으로 치달는 상태	20이하

1) 제시된 관계 범주는 산출된 HRI 한반도 평화지수의 크기에 따라 남북 관계 및 한반도의 평화의 정도가 현재 혹은 향후 대체로 어떠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만든 참고자료이다. 따라서 HRI 한반도 평화지수를 구성하는 세 부지수들을 이 범주에 그대로 적용하여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 부록 2 > 동향데이터 핵심 변수

< 동향데이터 핵심 변수 구성 >

구분	중분류	변수
경 제 (6개 변수)	남북 교역	남북한 교역액
		경제 협력액
	협력 사업	협력사업 승인 수
		경제교류협력지원
	관광	금강산 관광객
		개성 관광객
사 회 · 문 화 · 인 도 (8개 변수)	왕래	방남 인원
		방북 인원
	이산가족	이산가족 상봉 수
		이산가족교류지원
	사회문화협력	사회문화협력사업 승인 수
		사회문화협력지원
	인도적 지원	대북지원 (정부)
		대북지원 (민간)

주: 1) 남북한 교역액은 일반 교역과 위탁 가공으로 구성

2) 경제 협력액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그리고 기타 경제 협력액으로 구성

3) 경제교류 협력기금은 경제 분야의 교류협력기반 조성액과 남북교류협력지원 용자액으로 구성

<부록 3> 남북 관계 전문가 설문 조사

1. 조사 개요

- (목적) HRI 한반도 평화지수의 전문가 평가지수 산출을 위하여 지난 3개월 및 향후 3개월의 남북관계 진단 및 전망

- 조사 시기

- 1차 : 2010년 3월 29일 ~ 4월 2일 (5일), 총 응답자 91명

- 2차 : 2010년 4월 20일 ~ 4월 23일 (4일), 총 응답자 80명

2. 조사 내용

□ 남북 관계 분석 및 전망

○ 정치·군사 관계

(문) 남북 당국자 간 정치적인 신뢰 관계가 좋아졌다

항 목	비중(%)	
	1차	2차
1.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	57.1	86.5
2. 동의하지 못한 편이다	38.5	21.6
3. 보통정도	2.2	0.0
4. 동의하는 편이다	2.2	0.0
5. 매우 동의한다	0.0	0.0
계	100.0	

(문) 남북한간의 군사적인 긴장이 완화되었다

항 목	비중(%)	
	1차	2차
1.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	52.7	95.9
2. 동의하지 못한 편이다	40.7	12.2
3. 보통정도	6.6	0.0
4. 동의하는 편이다	0.0	0.0
5. 매우 동의한다	0.0	0.0
계	100.0	

(문) 북한과 주변국가와의 관계가 호전되었다

항 목	비중(%)	
	1차	2차
1.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	16.5	39.2
2. 동의하지 못한 편이다	45.1	55.4
3. 보통정도	29.7	13.5
4. 동의하는 편이다	8.8	0.0
5. 매우 동의한다	0.0	0.0
계	100.0	

(문) 북한 내부체제가 안정되고 있다

항 목	비중(%)	
	1차	2차
1.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	30.8	5.4
2. 동의하지 못한 편이다	37.4	51.4
3. 보통정도	22.0	37.8
4. 동의하는 편이다	8.8	13.5
5. 매우 동의한다	1.1	0.0
계	100.0	

(문) 전반적으로 남북간 정치·군사적인 관계가 좋아졌다

항 목	비중(%)	
	1차	2차
1.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	50.5	89.2
2. 동의하지 못한 편이다	45.1	18.9
3. 보통정도	4.4	0.0
4. 동의하는 편이다	0.0	0.0
5. 매우 동의한다	0.0	0.0
계	100.0	

(문) 남북 간 정치·군사적인 관계가 현재보다 좋아질 것 같다

항 목	비중(%)	
	1차	2차
1.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	18.7	33.8
2. 동의하지 못한 편이다	49.5	62.2
3. 보통정도	22.0	9.5
4. 동의하는 편이다	8.8	0.0
5. 매우 동의한다	0.0	0.0
계	100.0	

○ 경제적 관계

(문) 남북 경협사업의 여건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

항 목	비중(%)	
	1차	2차
1.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	37.4	70.3
2. 동의하지 못한 편이다	58.2	35.1
3. 보통정도	2.2	2.7
4. 동의하는 편이다	2.2	0.0
5. 매우 동의한다	0.0	0.0
계	100.0	

(문) 남북 교역의 확대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항 목	비중(%)	
	1차	2차
1.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	12.1	28.4
2. 동의하지 못한 편이다	29.7	40.5
3. 보통정도	31.9	17.6
4. 동의하는 편이다	20.9	14.9
5. 매우 동의한다	5.5	6.8
계	100.0	

(문) 북한 경제가 점차 개방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항 목	비중(%)	
	1차	2차
1.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	13.2	24.3
2. 동의하지 못한 편이다	41.8	48.6
3. 보통정도	24.2	21.6
4. 동의하는 편이다	20.9	13.5
5. 매우 동의한다	0.0	0.0
계	100.0	

(문) 북한 내부의 경제 사정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항 목	비중(%)	
	1차	2차
1.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	37.4	23.0
2. 동의하지 못한 편이다	47.3	59.5
3. 보통정도	11.0	18.9
4. 동의하는 편이다	4.4	6.8
5. 매우 동의한다	0.0	0.0
계	100.0	

(문) 전반적으로 남북 간 경제적인 관계가 좋아졌다

항 목	비중(%)	
	1차	2차
1.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	34.1	64.9
2. 동의하지 못한 편이다	57.1	40.5
3. 보통정도	6.6	1.4
4. 동의하는 편이다	2.2	0.0
5. 매우 동의한다	0.0	0.0
계	100.0	

(문) 남북 간 경제적인 관계는 현재보다 좋아질 것 같다

항 목	비중(%)	
	1차	2차
1.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	16.5	37.8
2. 동의하지 못한 편이다	49.5	62.2
3. 보통정도	23.1	6.8
4. 동의하는 편이다	9.9	0.0
5. 매우 동의한다	0.0	0.0
계	100.0	

○ 사회·문화·인도적인 관계

(문) 남북간 사회문화 교류(문화, 체육 및 이산가족 상봉 등)가 활발해졌다

항 목	비중(%)	
	1차	2차
1.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	48.4	70.3
2. 동의하지 못한 편이다	40.7	35.1
3. 보통정도	7.7	1.4
4. 동의하는 편이다	0.0	0.0
5. 매우 동의한다	0.0	0.0
계	100.0	

(문)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항 목	비중(%)	
	1차	2차
1.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	17.6	28.4
2. 동의하지 못한 편이다	50.5	48.6
3. 보통정도	26.4	25.7
4. 동의하는 편이다	3.3	4.1
5. 매우 동의한다	0.0	0.0
계	100.0	

(문)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많아졌다

항 목	비중(%)	
	1차	2차
1.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	35.2	62.2
2. 동의하지 못한 편이다	48.4	41.9
3. 보통정도	12.1	4.1
4. 동의하는 편이다	2.2	0.0
5. 매우 동의한다	0.0	0.0
계	100.0	

(문) 전반적으로 남북간 사회·문화·인도적 관계가 좋아졌다

항 목	비중(%)	
	1차	2차
1.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	31.9	66.2
2. 동의하지 못한 편이다	57.1	39.2
3. 보통정도	7.7	1.4
4. 동의하는 편이다	0.0	0.0
5. 매우 동의한다	0.0	0.0
계	100.0	

(문) 남북 간 사회·문화·인도적 관계는 현재보다 좋아질 것 같다

항 목	비중(%)	
	1차	2차
1.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	17.6	44.6
2. 동의하지 못한 편이다	48.4	54.1
3. 보통정도	25.3	8.1
4. 동의하는 편이다	5.5	0.0
5. 매우 동의한다	0.0	0.0
계	100.0	